

아주대의료원 소식

아주대학교의료원 건강 매거진



05+06 2023 VOL. 299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주대학교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소식

05+06

2023 VOL. 299

아주대학교의료원



▶ 아주대학교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



아주대병원TV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주대병원TV를 검색하거나
왼쪽 QR코드 스캔 후
구독 버튼 클릭!



WANTED

현상수배

- 이름 모름
- 나이 모름
- 주소 모름

특징

- <아주대의료원 소식>을 1호부터 299호까지 중복 없이 10권 이상 소지한 분(a.k.a 소식지 덕후)
- 29년 전 탄생한 <아주대의료원 소식> 1호를 집에 소중히 모셔둔 분(대단하세요...)
- 본인이 나온 사진 또는 기고한 글이 게재된 <아주대의료원 소식>을 소장한 분(※ 교직원 제외)

2023년 7월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발행 300호를 맞이해
‘소식지 짠팬 찾기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소식지 표지에 신청자 본인의 이름을 정자로 기재한 후 사진을 찍습니다.
- 메일 또는 아주대학교병원 공식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사진을 전송하면 응모 완료!
 ✉ sonajou47@ajou.ac.kr
 📘 facebook.com/Ajoumc
 📷 instagram.com/ajoumc_

신청 기한

2023. 5. 14.(일)

당첨자 발표

<아주대의료원 소식> 300호(7+8월호)에 게재 예정

당첨자 혜택

- 응모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소식지 짠팬 3명을 선정해 인터뷰·촬영 후 <아주대의료원 소식> 300호 특집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기타

- 경품 지급을 위해 추후 개인 정보 제공·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 경품에 대한 제세 공과금은 당첨자 본인 부담입니다.

CONTENTS

2023 05+06 | vol.299

아주대의료원 소식

아주대의료원 소식은 다양한 의료 정보를 담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의 건강 매거진입니다.

<p>02 선인재 칼럼 새로운 시작과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p> <p>04 Medical Theme 노인성 질환 • 노화성 난청 • 노인성 황반변성 • 노인성 우울증 • 행복한 노년을 위한 건강 상식</p> <p>10 Cover Story 3년 만에 재개한 의료봉사 온정의 손길 가득하던 현장</p> <p>12 AJOUTOON 가와사키병</p> <p>14 7問 7答 전문가가 답하는 척추관 협착증</p> <p>16 Good Doctor 치주질환과의 기나긴 싸움에 동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치주과 지속 교수</p> <p>20 나의 연구 나의 테마 영국에서 림프계 인터벤션의 역사를 찾다</p>	<p>22 책과 감염병 ㉔ 소설로 보는 손 위생의 역사</p> <p>24 Center of AUMC 생존율 향상을 위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합니다 아주대학교병원 체장담도암센터</p> <p>28 명화로 보는 한 뼉 인문학 부모라는 역할이 지닌 무게 모리조 ‘요람’</p> <p>30 Best 논문</p> <p>33 AUMC News</p> <p>36 Today AUMC</p> <p>37 진료협력센터 소식</p> <p>38 협력병원 탐방 건강한 일상을 당신과 함께 만듭니다 위드유내과</p> <p>40 Add to Heart</p> <p>42 미디어 속 아주</p> <p>44 고객의 소리</p>
---	--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아주대학교 개교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지역 소외계층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발행처 아주대학교의료원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전화 1688-6114
홈페이지 www.ajoumc.or.kr
발행인 겸 편집인 아주대학교의료원장 박해심
발행일 2023년 5월 1일
기획·디자인·제작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16

새로운 시작과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글. 임상현 기획조정실장(심장혈관흉부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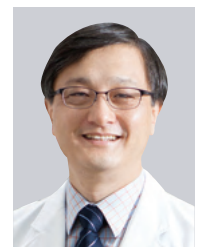
새로운 시작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계절인 봄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봄, 다시 새롭게 피어나는 푸르른 나뭇잎과 꽃을 보면 마치 세상이 새로워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봄은 삶의 시작을 상징하는 계절이자, 어두운 시기가 끝나면 밝은 미래가 찾아온다는 희망을 품게 해주는 계절이다. 계절의 변화와 맞물려 우리 의료원도 추운 겨울과도 같던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때가 왔다.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중책과 함께 처음 맞이하는 2023년의 봄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의 미래를 향한 한 차원 높은 도약을 꿈꾸게 한다.

지난 3년간의 팬데믹 상황과 급변하는 내·외부적 의료 환경 변화 속에서도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치과병원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진료 환경 조성, 당일치료센터 개소로 항암치료 환자들의 편안함을 극대화한 공간 제공, 로봇수술센터 조성으로 로봇수술 활성화를 비롯한 더 나은 진료 환경 마련 등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뿐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의 닥터헬기 운용을 바탕으로 경기남부 최상의 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24시간 365일 소아 응급 환자 진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등 최근 의료계 화두인 지역사회 내 사회적 책임을 훌륭하게 수행해왔다. 또한 연구 분야에서의 비약적 발전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굳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단기간 내 쌓아온 이와 같은 수많은 성과는 보다 나은 의료원을 만들기 위한 원내 모든 구성원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헌신이 빚어낸 값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2023년에 맞이하는 봄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이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봄이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수많은 봄들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환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하며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신관 건립,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위상수립에 한 축을 담당해온 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첨단의학관 신축, 그리고 지역사회 및 국가적 필요에 부응하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중증외상센터 및 응급의료센터의 확장, 상시 감염 관리병동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의료원의 시작이던 송재관과 병원 본관의 리모델링도 계획돼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의 과정을 마치면 의료원은 1,450여 병상과 독립된 첨단의학관, 국내 최고의 중증외상센터 및 응급의료센터, 감염관리 시스템을 갖춘 의료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노먼 프랜시스(Norman Francis)는 “모든 꽃이 봄의 첫날 한꺼번에 피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도전과 투자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직원들의 노력과 희생이 뒤따라겠지만, 당장 우리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목표를 향해 선택한 이 길이 맞는지 고민할지 모른다. 그러나 30여 년 전 지역 병원으로 시작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일천한 역사에도 연구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최상위급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던 것은 의료원 구성원들의 역량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며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왔기에 가능했다. 찬란한 봄을 맞이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출발선에 선 지금, 새로운 꽃을 피워내기 위해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자. 우리의 꿈과 노력은 반드시 아름답고 찬란한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임상현 기획조정실장(심장혈관흉부외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아주대학교병원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 소장
아주대학교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진료 분야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대동맥질환

진료 시간
수·목 오전 / 수 오후



세월 앞에 장사 없다? ‘노인성 질환’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노화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화가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노인성 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노화 현상 중 하나라고 생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않아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인성 난청, 노인성 황반변성, 노인성 우울증 등 대표적 노인성 질환의 원인 및 치료 방법을 알아보고,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 상식을 소개한다.



노화성 난청

소통의 행복을 앗아가는 청력 저하 노화성 난청

난청을 노화의 한 증상으로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화성 난청을 오래 방치하면 청력 상실은 물론 치매나 우울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글: 정연훈 교수(이비인후과)



이명, 우울증, 치매 등을 부르는 노화성 난청

노화성 난청은 노화로 인한 청각계의 복합적 질환으로,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양측 대칭의 특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일반적으로 고주파수에서의 난청을 특징으로 하며, 시끄러운 곳에서 말소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TV 소리를 크게 듣는다든지, 상대의 질문에 자주 되묻는 증상을 보이며, 이명이나 수면 장애를 호소하기도 한다.

난청이 점차 심해지면 대화할 때 자신감을 잃어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며, 가족·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면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아울러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중도난청은 3배, 고도난청은 5배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이는 듣기 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인지할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들고, 인지 영역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화성 난청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청각기관의 노화, 환경적·유전적 요인을 비롯해 당뇨병·고혈압·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유전적 요인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거나 강도 높은 소음 또는 폭발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 더불어 이독성이 있는 항암제나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술·담배 등을 멀리하는 등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도난청 이상이면 빨리 보청기를 착용해야

노화성 난청의 진단을 위해서는 정기적 건강검진 등을 통한

청각 검사가 필요하다. 본인이 난청을 인지하기 전에 주변에서 먼저 청각 검사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면 정밀 청각 검사를 진행해봐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에서 제공하는 노화성 난청의 ‘청각장애지수 선별 검사(자가진단법)’를 시행해보는 것도 좋다.

노화성 난청은 안타깝게도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수술하는 것이 좋다. 중도난청(청력역치 40dB 이상)의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 보청기를 너무 늦게 착용하면 소리를 담당하는 뇌가 퇴화하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고도난청(청력역치 70dB 이상)이면 청각세포 대신 청신경을 직접 자극해주는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아야 한다. 인공와우 이식술은 효과가 매우 우수해 대부분 수술 후 일상적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 비용이 고가인 데다 양측 고도난청으로 급여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필요한 경우 골도보청기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이비인후과 정연훈 교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아주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교수
진료 분야
 인공와우, 난청, 보청기, 중이염, 어지럼증, 얼굴 신경 안면 마비, 두개저종양
진료 시간
 화·목 오전 / 월 오후

노인성 황반변성

실명까지 유발하는 무서운 안질환 노인성 황반변성

황반변성은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경조직인 황반부에 변성이 발생하는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노인성 황반변성 진료 건수가 지난 4년간(2017~2021년) 연평균 23.2%씩 빠르게 증가했다.

글. 이기황 교수(안과)



사람마다 증상 달라 정기적 안과 검진 필수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발병하는 노인성 황반변성은 황반부에 드루젠이라는 침착물이 쌓이고 다양한 형태의 변성이 오는 질환이다. 대표적 원인은 노화이며, 이 외에도 흡연, 비만, 고혈압, 스트레스, 유전학적·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인성 황반변성은 안저검사, 형광안저혈관조영, 인도사이아닌그린혈관조영, 빛간섭단층촬영, 빛간섭단층혈관조영술 등 다양한 안과 검사 장비를 사용해 진단한다. 대개 초기와 중기의 노인성 황반변성과 후기 위축성 타입을 통틀어 '건성 황반변성'이라고 하며, 후기 타입 중 맥락막신생혈관(안구벽의 중간층을 구성하는 혈관 조직인 맥락막에서부터 안구의 신경층인 망막 쪽으로 비정상적 혈관이 자라나는 것)이 동반된 경우를 '삼출성 황반변성'이라고 한다.

노인성 황반변성의 증상은 초기·중기·후기별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에는 뚜렷한 이상 증세를 찾기 어렵다. 중기 단계에는 직선이 구부러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상(像)이 왜곡되거나, 중심 시야에서 작은 암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후기 단계 중 위축성 타입의 경우 위의 증상에 더해 시야의 중앙에 사물이나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암점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삼출성 타입의 경우 출혈과 삼출물에 의한 중심 시야가 빠르게 손실되며 암점이 증가할 수 있고, 색상이나 미세한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소실될 수 있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증상과 진행 상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초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 늦추고 시력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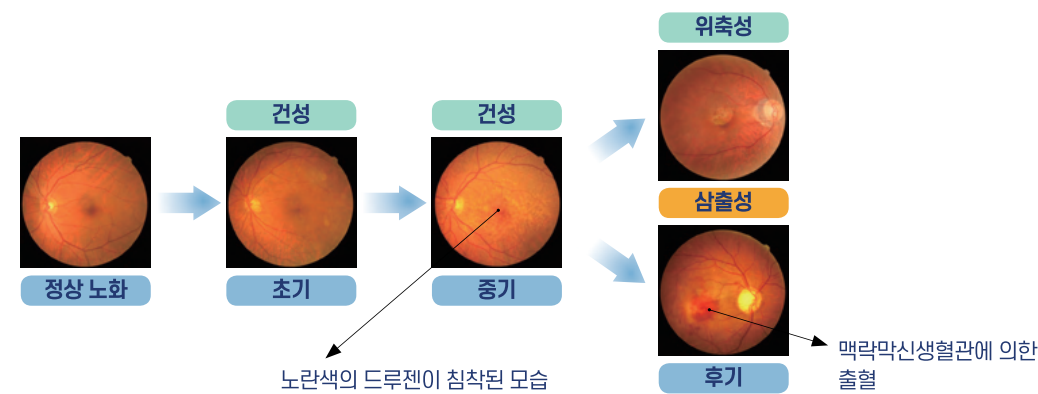
여러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명 위험이 높은 후기 단계의 노인성 황반변성 유병률은 1% 내외다. 따라서 단순히 노인성 황반변성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방치할 경우 실명 위험이 있는 만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노인성 황반변성의 치료는 질병의 유형과 심각도에 따라 다르다. 현재 노인성 황반변성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은 존재한다.

초기 단계에는 시력 변화 및 상의 구부러짐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중기 단계에는 항산화제와 아연이 함유된 영양 보충제가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돼 있다.

후기 단계 중 위축성 타입의 노인성 황반변성에 사용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보는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2023년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위축성 타입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를 승인함으로써 국내에서도 조만간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출성 타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황반 부위의 비정상적 혈관 성장을 멈추는 유리체강 내 주사 치료, 즉 항혈관 내피 성장 인자(Anti-VEGF) 치료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며, 매우 드물지만 경우에 따라 레이저 치료를 진행하기도 한다.

젊은 층의 노인성 황반변성 발병률 증가

노인성 황반변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최근 젊은 층의 발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조기 진단율 증가에 따른 자연적 결과다. 실제로 노인성 황반변성에 대한 사회적 교육과 홍보 및 진단 기술의 발달로 전과 달리 한층 이른 나이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 둘째,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한 위험 요인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건강과는 거리가 먼 식습관·고혈압·흡연 등은 모두 노인성 황반변성의 위험 요인으로, 젊은 층이 노년층보다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셋째, 유전학적 요인에 따른 이른 발병이다. 노인성 황반변성은 유전적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로 인해 특정 젊은 층에서 조

기에 발병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이가 많지 않다고 해서 눈 건강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시력에 변화가 있는 경우 안과 의사와 상담한 뒤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성 황반변성을 예방하고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금연, 혈압 관리, 건강한 식습관 유지, 자외선으로부터 눈 보호 등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비타민 C·E, 루테인, 지아잔틴, 아연, 구리 등이 포함된 영양 보충제를 복용하면 중기 단계의 노인성 황반변성에서 후기로 진행할 위험이 약 18% 감소한다고 알려진 만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안과 이기황 교수
 맥길 대학교(McGill University) 졸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아주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안과 부교수
진료 분야
 망막(노인성 황반변성, 당뇨성·혈관성 망막병증, 유전성 망막질환), 포도막염, 백내장
진료 시간
 월·목 오전 / 수·우후

노인성 우울증

치매로 오인하기 쉬운 마음의 병 노인성 우울증

노인성 우울증은 노년기에 흔히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중 하나다. 실제로 노인의 30~50%는 우울감을 호소하며, 약 10%는 자살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글. 홍창형 교수(정신건강의학과)



노인의 상당수가 혈관성 우울증으로 고생

노인성 우울증은 신체 및 정신 기능 저하, 배우자 상실, 은퇴, 자녀와의 분리, 경제적 곤란, 만성질환, 뇌혈관 막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우울감, 의기소침, 무기력, 자발성 저하, 불안, 불면, 건강 염려증, 기억력 저하 등이 있다. 노인성 우울증은 심도 있는 면담과 신체검진을 통해 진단하며, 우울증을 유발한 신체적·정신적 원인에 대한 평가 및 교정약물 등으로 치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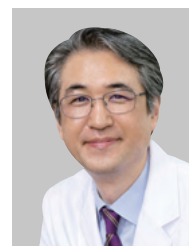
노인 1,060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주요 우울장애가 있을 때 혈관성 우울증이 65~69세는 33%, 70~74세는 75%, 75세 이상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층이 겪는 주요 우울장애는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혈관성 우울증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다면 약물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혈압,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비만, 흡연, 운동 부족 등 혈관 건강에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진 노인일 경우 하루빨리 이를 개선함으로써 혈관성 우울증을 예방해야 한다.

건강한 생활 습관, 사회활동, 약물치료 중요

노인성 우울증에 걸리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치매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인성 우울증은 치매와 달리 약물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하다. 또 초기 치매 환자의 경우 자신에게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럴듯한 답변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매사에 의욕이 없어 건성으로

대답하는 노인성 우울증 환자의 특성과는 매우 다르다.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가 함께 발병할 수도 있는데, 노인성 우울증은 치매 발병 위험을 2배나 높이는 만큼 증상이 있을 때 가급적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생활 속에서 노인성 우울증을 예방 또는 극복하기 위해 첫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 운동, 적절한 영양 섭취 등을 통해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신체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검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갑상선기능저하증뿐 아니라 허리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의 만성 통증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서로 위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가족이나 친척과 자주 연락하고 정기적 종교 활동, 동호회, 노인종합복지관 활동 등 자신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려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성 우울증은 약물치료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



정신건강의학과 홍창형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노화과학협동과정 박사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장
아주대학교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 부원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주임교수 겸 임상과장

진료 분야
노인정신의학, 기억력장애, 노인성 치매

진료 시간
수요일 / 수목 오후

행복한 노년을 위한 건강 상식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건강 상식

글. 김광민 교수(가정의학과)

<h3>< 노년기에 근력운동은 필수? ></h3> <p>근력이 감소하면 신체 활동이 줄고,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노년에도 유산소운동, 균형 활동과 더불어 근육량 및 근력을 늘리는 근육 강화 운동이 필요하다. 근육 강화 운동은 다리·엉덩이·등·복부·가슴·어깨·팔 등의 주요 근육을 움직이는 것으로, 운동기구를 이용한 웨이트트레이닝이나 팔굽혀펴기, 밴드 저항을 이용한 운동, 요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p>	<h3>< 노년기에 꼭 먹어야 할 영양소? ></h3> <p>나이와 관계없이 고른 영양 섭취가 중요하지만 노화에 따라 더 필요한 영양소로는 비타민 D·B6·B12, 단백질, 칼슘, 아연 등이 있다. 실내에서만 생활하거나 골연화증·골다공증이 있다면 비타민 D를 일일 권장 섭취량인 10μg(400IU)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B6는 인지 능력·면역력·말초신경계, 비타민 B12는 인지기능과 관련이 깊다. 단백질은 근감소 예방, 칼슘은 골절이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섭취해야 한다.</p>	<h3>< 노년기 수면의 질 높이는 법? ></h3> <p>숙면을 위해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 카페인, 흡연, 알코올, 과식, 취침 전 수분 섭취, 장기적 수면제 사용 등을 피하고, 밤에 규칙적인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 낮잠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0분 이내로 잔다. 침실의 소음과 빛 차단 및 적절한 온도 유지가 도움이 된다. 매일 40분 내외의 운동을 하고, 잠들기 5시간 전에는 끝낸다. 체력에 문제가 없다면 졸릴 때만 잠자리에 눕는다.</p>
<h3>< 소식하면 장수할 수 있다? ></h3> <p>칼로리를 10~30%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소식을 하면 수명 연장, 대사 지질 및 호르몬, 염증 완화, 심혈관질환 등에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년기에 소식으로 체중이 감소하면 체질량지수가 낮아짐에 따라 사망률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또 근력과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식하되 유산소 및 근력운동을 병행하고, 매일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p>	<h3>< 카페인(커피) 섭취가 노년기 건강에 좋다? ></h3> <p>카페인에 뇌의 각성도와 주의력을 높이며, 피로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 신진대사율을 증가시켜 지방을 태우며, 근력·지구력을 향상시키고, 항산화 작용으로 제2형 당뇨병·결장암·간암·파킨슨병·알츠하이머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불면증 방지를 위해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다 섭취 시에는 빠른 맥박, 불안, 구역질, 두통, 탈수가 생길 수 있다.</p>	<h3>가정의학과 김광민 교수</h3> <p>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Uconn Center on Aging 연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p> <p>진료 분야 남성갱년기, 피로, 노화관리</p> <p>진료 시간 화목금 오전 / 월목 오후</p>

3년 만에 재개한 의료봉사 온정의 손길 가득하던 현장 아주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의료봉사

아주대학교의료원 의료봉사동아리가 지역민과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의료봉사 활동에 나섰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중단된 지 약 3년 만이다.

글. 김광균 사진. 안호성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서 검사받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 안심이에요. 약만 잘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하시네요.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처방약을 기다리는 박옥희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병원 인근에 거주하는 박 할머니는 집 근처 복지관을 통해 의료봉사 소식을 듣고 왔으며 친절하게 응대해준 의료진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의료봉사동아리는 4월 14일 오전 9시부터 오

후 4시까지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의료원과 함께하는 지역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아주대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는 의료원 ESG 경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봉사동아리 소속 35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의료원은 의료봉사와 함께 아주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도 실시했다.

“그동안 의료봉사를 하지 못해 봉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마침 학교 측 요청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를 계기로 앞으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정화 의료봉사동아리 부회장(건강증진센터 진료운영팀장)은 다소 상기된 모습으로 오랜만에 봉사를 재개한 소감을 전했다. 의료봉사동아리는 이번 의료봉사에 앞서 수원시 영통구청·외국인 근로복지센터·다문화센터 등과 연계해 총 150여 명에게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자들에게 무상으로 의로서비스를 제공했다. 체육관 내부에는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치과 등 환자들이 주로 찾는 진료 과목 중심으로 부스가 마련됐다. 부스 맞은편에는 물리치료실, 심전도·초음파 검사실, 골밀도 검사실, 체성분 검사실, 혈액 검사실 등 다양한 검사를 위한 부스도 차려졌다.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맞춤 상담을 진행하며,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검사 부스로 안내를 도왔다. 진료를 받기 위해 현장을 찾은 환자의 대부분은 외국인과 나이가 많은 지역 어르신이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위해 통역사도 현장에 배치됐다.

수원에 거주 중인 몽골인 간바타르 씨는 SNS 커뮤니티에서 지역 의료봉사 소식을 접하고 이곳을 찾았다. “코막힘이 심해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받았어요.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동료들과도 함께 와서 도움을 받고 싶어요.”

의료봉사는 계속된다

아주대학교의료원 의료봉사동아리는 2007년 창립 이후 지역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활발하게 수행하며,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의료봉사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국내뿐 아니라 2008년 베트남·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아이티, 필리핀 등지에서 활발한 의료봉사를 펼치며 그동안 진료한 환자 수가 1만 명이 넘는다.

“아주대학교병원 주변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외계층이나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등이 많습니다. 우리 동아리는 그분들을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왔는데,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할 수 없었어요. 아주대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아 학교 측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준 덕분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봉사동아리를 이끌고 있는 정윤석 회장(내분비대사내과 교수)은 이날 오전부터 줄지어 선 환자들을 진료하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지만 환자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



다고 했다.

“이번 봉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의료봉사를 재개할 생각이예요. 오는 9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타슈켄트 아주대학교(AUT)에서도 의료봉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 합니다”라며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가와사키병



카툰: 류근 감수, 정수인 교수(소아청소년과)

몸 상태가 안 좋아 힘들어하는 다섯 살 우람이와 함께 아주대학교병원을 찾은 세희 씨.

소아청소년과 정수인 교수의 진료를 받는다.

보호자분, 아이에게 어떤 증상이 있나요?

저희 아이가 일주일 전부터 열이 많이 나서 해열제를 먹었는데도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네요.

눈이 충혈되고 몸에 발진이 있어요. 단순한 감기는 아닌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아이들 살펴보는 정수인 교수.

우람아, 입 한번 벌려볼까?

딸기처럼 변해 있는 우람이의 혀.

자세한 것은 검사해봐야겠지만, 가와사키병의 전형적 증세를 보이고 있네요. 혈액검사와 심초음파검사를 진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와사키병요? 심각한 병인가요?

가와사키병이란 주로 영아나 소아에게서 발생하는 급성 혈관염입니다. 대개 우람이와 같이 5세 이하의 소아에게서 나타나지만, 그 이상의 연령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봄-겨울에 발생률이 높지요.

가와사키병은 왜 걸리는 건가요?

가와사키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니다. 다만 유전적 소인이 있는 아이가 바이러스 등과 같은 어떤 병원체에 감염됐을 때 과도한 면역반응이 일어나면서 가와사키병을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아이처럼 열이 나고 발진이 일어나는 게 가와사키병의 주된 증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눈곱 없이 눈 흰자위가 빨개지고, 혀가 딸기 모양으로 변하는 것이 가와사키병의 대표적 증상입니다.

5일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서 주요 증상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면 전형적 가와사키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검사와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합니다.

가와사키병의 주요 증상

- 5일 이상 발열 지속
- 입술과 혀가 빨개지고, 혀가 딸기처럼 변함
- 목에 있는 림프절이 부어오름
- 양쪽 눈 모두 눈곱이 끼지 않는 안구 결막 충혈
- 몸이나 BCG 접종한 곳에 울긋불긋한 발진
- 손발이 붓고 빨갱게 변함

치료는 가능하겠죠?

급성기 가와사키병의 경우 면역글로블린과 아스피린을 사용한 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발병 후 10일 이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심한 경우 가와사키병으로 인해 심근염, 부정맥, 관상동맥류 등 심장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조심!

- 심근염
- 관상동맥류
- 부정맥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 경과를 지켜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에도 관상동맥류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심초음파검사를 해야 합니다. 관상동맥류가 없는 경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상동맥류가 있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심근 허혈 유무를 추적 관찰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치료적 심도자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재발률은 약 4~5% 보고되고 있습니다. 드물게 3번 이상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가와사키병에 걸렸던 아이에게 고열이 생기면 아이 상태를 세심히 관찰한 뒤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재발하더라도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4~7일 입원 치료로 대부분의 증상을 크게 완화하는 것은 물론, 합병증 발생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와사키병의 예방법은 따로 없나요?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아 특별한 예방법은 없지만,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후 치료 잘 받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네요.

전문의가 답하는 척추관 협착증

글: **윤승현** 교수(재활의학과)



Q1

척추관 협착증은 무엇이며,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요?

척추관 협착증이란 척추의 노화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디스크, 황색인대, 후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척추관 사방이 좁아져 신경이 눌림으로써 허리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 신경 증세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 있는 탄력적 추간 조직을 '디스크(추간판)'라 하는데,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30대부터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황색인대와 후관절이 두꺼워지는 것 역시 노화의 과정이며,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늘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같이 허리에 이와 같은 노화가 일어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척추관 내 공간의 3분의 1 이상이 좁아지는 협착이 60세 이상 10명 중 8명에게서 발생할 정도로 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은 '질환'이라기보다 '노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척추관 협착증은 요추(허리등뼈)에 주로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의미하며, 경추(목뼈)에 발생할 경우 경추 척추관 협착증이라 부릅니다.



재활의학과 윤승현 교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아주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아주대학교병원 교육수련부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주임교수 겸 임상과장

진료 분야
근골격계재활, 암재활, 척수손상

진료 시간
화금 오전 / 화목 오후

Q2

척추관 협착증의 주된 증상은 무엇인가요?

앉아 있을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짧게는 50m, 길게는 500m 정도의 거리를 걸을 때 허리 통증은 없지만 양측 허벅지와 종아리가 땅기고 저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걷기가 어렵다가 허리를 구부리거나 잠시 걸음을 멈추고 쯤그리고 앉아서 쉬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면 증상이 완화되는 것은 구부렸을 때 척추관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좁아진 척추관이 스스로 넓어질 수 없으므로 증상이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Q3

디스크 탈출증과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가 돌출돼 신경을 눌러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척추관 협착증과는 다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주로 60대 이상에게서 발생하는 것과 달리 디스크 탈출증은 20~50대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요통을 동반하지 않고, 허리를 구부리면 양쪽 다리에 발생한 증상이 호전됩니다. 반면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 요통을 동반하고,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이 한쪽에만 발생하며, 허리를 구부려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과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신경학적 검사와 문진을 시행했을 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방사선검사(X선 검사)를 진행합니다. 방사선검사를 통해 퇴행성 여부는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하지만, 척추관의 좁아진 정도를 확인하거나 좀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CT나 MRI 촬영, 척수 조영술 등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MRI 촬영 시 압박된 부분을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척수 조영술 시행 시 모래시계 형태로 좁아진 척추관에 조영제가 막히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Q5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방법이 궁금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중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신경 자극에 의한 염증을 줄이기 위해 3~6주간의 소염제 복용이나 염증을 완화하는 주사 치료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고 근력 저하가 일어나거나, 증상이 심해 배변 이상이 생길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꺼워진 디스크, 황색인대, 후관절 돌기 내측을 충분히 절제해 감압(압력을 낮춤)하는 감압술을 주로 시행합니다. 또한 신경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경근이 눌리지 않도록 하는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Q6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

척추관 협착증은 평소 생활 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허리를 너무 많이 움직이는 등 척추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척추에 부하가 가해져 퇴행성 변화를 촉진합니다. 갑자기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등의 동작도 척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앉거나 설 때에도 최대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비만한 경우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해져 있어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일상 속 허리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몸을 웅크리면 다리 저림이 감소하므로 자주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게 되는데, 이러한 자세를 반복하면 척추의 압박골절과 퇴행성 변화가 가속돼 척추관 협착증이 악화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요추의 전만(커브) 유지를 위한 신전 운동입니다. 14쪽 그림처럼 선 자세에서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양손을 허리에 얹습니다. 어깨 힘을 빼고 고개와 함께 허리를 뒤로 젖혀 10초가량 유지합니다. 이때 다리 저림이 없는 정도까지 허리를 젖힙니다. 다시 준비 자세로 천천히 돌아오는 과정을 총 10회 반복합니다. 🏃

치주질환과의 기나긴 싸움에 동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치주과 지숙 교수

치아는 심신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예로부터 사람들은 치아 건강을 큰 복으로 여겼다. 치주(齒周)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 없다. 치아 건강이 복이라면, 치주는 복을 받치는 기둥이다. 기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법. 치주과 지숙 교수를 만나 들어봤다.

글. 이성미 사진. 이성원

환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채운 친절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모르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 친절하라, 그 어느 때라도(Everyone you meet is fighting battle you know nothing about, Be Kind, Always).”

노르웨이 드라마 <스캄(Skam)> 속 주인공의 방에 적혀 있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른다. 입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투가 벌어진다. 저마다의 전투로 지친 몸을 이끌고 사람들은 치주과 지숙 교수를 만난다. 이때 지숙 교수가 참전에 앞서 가장 먼저 꺼내 드는 것은 ‘친절’이다.

지숙 교수는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치주과 임상조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겸임교수를 거쳐 2017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에 임용됐다. 이전 병원에서 친절직원으로 뽑힐 만큼 그는 환자를 친절히 응대하며 진료했다. 의사라서, 환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조건과 목적 때문이 아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친절에는 이유가 필요치 않다.

“저는 ‘의사기 때문에 친절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친절을 베푸는 데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이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싶고요. 저를 만난 환자가 병원을 찾을 때보다 더 나은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정기검진차 들르는 의료진도 많은데, 그들을 치료할 때도 마음속으로 바랍니다. ‘내가 베푼 정성이 저들을 통해 다른 환자에게도 전달되길’이라고요.”

지숙 교수의 몸과 마음에 친절이 깃든 또 다른 이유는 환자를 ‘동료’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치주질환 치료는 의사의 독주(獨奏)가 아니다. 환자와 함께하는 합주(合奏)다. 의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성실히 치료하고, 환자는 집으로 돌아가 본인의 치아를 잘 관리해야 한다. 특히 치주질환은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지숙 교수는 환자를 동료로서 존중하고 아낀다.

임플란트 치료 시에는 치과병원 안에서 먼저 합주가 이루어진다. 성공적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선 구강 내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물이 오랫동안 제 역



치주과 지숙 교수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박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치주과 임상조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겸임교수
UCLA School of Dentistry 연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부교수

진료 분야

임플란트, 잇몸(치주염) 치료, 잇몸성형, 잇몸계속관리

진료 시간

월·화·목·금 오전 / 월·목·금 오후



① 치은염으로 내원한 환자를 치료 중인 지숙 교수
 ② 임플란트 수술 후 계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상태를 논의 중인 지숙 교수의 모습

할을 해내도록 해야 한다. 아주대학교병원 치과병원에서는 수술을 담당하는 구강외과와 치주과, 보철물을 제작하는 보철과 등의 의료진이 합심해 전문적 임플란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치주과에서는 수술 전 관리, 수술, 계속 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환자를 꼼꼼히 살핀다.

치주가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하다

시중에는 치주질환 예방 및 증상 완화를 홍보하는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 치주질환을 올바르게 치료하기 위해선 먼저 치주과를 찾아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치주과에서는 치아의 목과 뿌리를 덮고 있는 점막 조직인 치은(齒齦), 치아 뿌리를 받치는 치조골(齒槽骨) 등 치아 주변 조직의 치료를 담당한다. 입속에서는 구강세균과 면역세포가 싸운 결과가 질환으로 나타난다. 면역학적 요인이나 만성질환, 흡연과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치주질환이 생기기도 한다. 칫솔질로 세균이 들러붙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크게 공을 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숙 교수는 치주질환으로 내원한 환자를 치료하는 동시에 올바른 양치 방법과 치주 건강 관리법을 안내한다. 임플란트 환자도 마찬가지다. 치주질환이 있거나 임플란트 완성 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위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치주과에서는 임플란트가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올바른 칫솔질과 금연, 정기검진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치주질환 치료와 관리에는 특별함보다 성실함이 더 필요합니다. 환자 맞춤형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따라서 환

자의 구강 상태에 맞는 칫솔질 방법을 안내하고, 관리 주기 및 불소도포 시기 등을 결정해 환자가 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치주질환을 방지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이 전신 질환으로 이어져 서서히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치주조직에 침투한 세균이 질환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염증성 물질과 함께 미세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지며 당뇨병·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류마티스관절염·호흡기질환·구강암·직장암·알츠하이머 치매 등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환자를 위해 노력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람의 입속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이 살며, 이는 치주 및 전신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치주과 전문의에게는 구강세균의 생태계(Microbiome, 마이크로바이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숙 교수 역시 치주질환과 구강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에 힘쓰고 있다. 치주염의 진행에 따른 구강 안 세균들의 생태를 분석해 병을 진단 및 예측하는 멀티오믹스(Multi-omics) 기반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연구가 대표적이다. 치주염의 원인, 진단, 예후를 판단하기 위해 바이오마커(Biomarker)를 탐색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과거 지숙 교수는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마우스피스형 칫솔을 개발한 바 있다. 마우스피스형 칫솔은 치아와 잇몸이 닿는 부위, 치아와 치아 사이 등 제대로 된 양치질이 필요한 부위에 칫솔을 위치시켜 진동 방식으로 닦아내는 기구다. 칫솔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 지숙 교수는 오랜 기간 해당 연구를 진행해왔다.

“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모든 의사는 환자가 있기에 존재합니다.

”

“양치만 잘해도 치주질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늘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식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세균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칫솔을 개발하게 됐죠. 현재 디자인 특허등록까지 마쳤으며, 향후 3D 프린팅 기술이나 소재 개발 등이 이루어진다면 상용화 단계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숙 교수가 거듭 강조하듯 치주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치다. 특히 세균이 달라붙기 쉬운 부분을 최소 2분 정도 꼼꼼하게 양치해야 한다. “저는 종종 칫솔을 거실로 들고 나와 양치하곤 해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하면 천천히 오래 양치할 수 있거든요”라며 팁을 전수한다. 사람들의 치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숙



교수는 계속해서 평범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전파할 계획이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세상의 모든 의사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저 역시 저를 믿고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위한 치료와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나는 복이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타고난 복을 가늠하며 미리 좌절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구강 건강’이란 복은 매일 나의 노력에 따라 차곡차곡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루 하루 환자를 위해 치주질환과 싸우는 지숙 교수가 있기에 우리는 안도할 수 있다. 🙌

TIP



치아 관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 Q1 칫솔을 제외하고 치아 세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도구는 치실이다?**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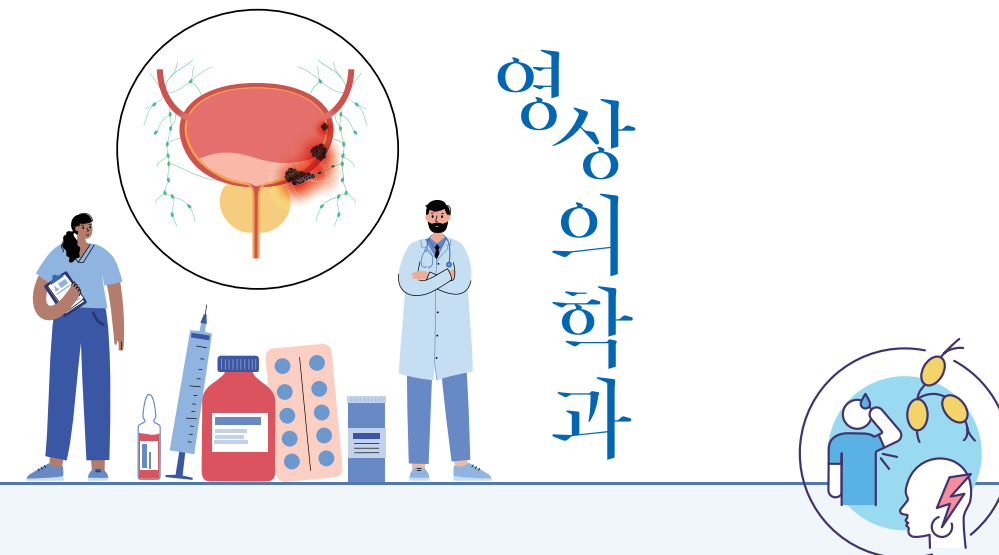
각각의 치아를 하나의 원기둥으로 생각했을 때 양치 시 원기둥의 모든 면을 닦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치아 사이를 세정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는 치간칫솔이다. 치간칫솔을 사용할 때는 치아 사이 음식물을 빼는 데 그치지 말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치아 사이사이를 칫솔질하듯 문질러야 한다. 치실은 치간칫솔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만 사용할 것 권한다.
- Q2 구강세균을 없애기 위해선 양치를 자주 하는 것이 좋다?** No!

‘자주’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양치질을 잘하는 것이란 반드시 닦아야 하는 부위인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이 닿는 부위 등을 제대로 닦는 것을 말한다. 세균이 가장 많이 머무는 혀도 꼼꼼히 닦아주어야 한다.
- Q3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No!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히 건강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칫솔과 치간칫솔을 활용한 물리적 세정과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국에서 림프계 인터벤션의 역사를 찾다

글. 김진우 교수(영상의학과)



림프계 인터벤션이란?

‘림프계 인터벤션’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건 사실 당연한 일이다. 영상학과 의사 중에서도 이 분야를 접해본 의사가 많지 않고, 관련 시술을 시작한 이후 실제 임상에서 활발히 활용하게 된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오랜 친구의 멋진 면을 간혹 재발견하는 경우처럼, 이 분야 역시 진가를 알아보고 임상에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결국 이 분야가 활발해진 것만 봐도 새삼 시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껴진다.

이 분야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기능적으로는 순환계에 통합되어 있음에도 동맥이나 정맥계에 비해 알려진 바가 적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혈관 조영술과 단면 영상의 발전이 혈관계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과 달리 림프계는 적절한 영상 기법의 부재로 림프계의 해부학적 구조와 림프의 흐름, 나아가 림프 질환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952년 Kinmonth에 의해 최초 기술된 Pedal Lymphangiography(발 경유 림프관조영술)는 림프계 영상 기법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영상 기법이 되었다. Kinmonth는 영국 런던의 St. Thomas 병원에 기반을 둔 외과 전문의로, 환자의 발가락 사이에 식물성기름 성분의 조영제를 주입해 림프계 영상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참고로 St. Thomas 병원은 런던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라면 누구나 가봤을 템스강의 런던 아이 근처에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다리 양쪽에 병원과 런던 아이가 있다. Kinmonth 덕분에 림프계 영상 검사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다. 하지만 발 림프관조영술을 하기 위해서는 외과적 절개가 필수였고, 이 절개

법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소요시간이 길어 영상학과 의사들이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후 기술적 발전을 통해 2011년 미국에서 사타구니 림프절을 통해 조영제를 주입하는 방식인 Intranodal Lymphangiography(림프절 경유 림프조영술)가 소개됐다. 이 검사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림프조영술의 검사 방법이 쉬워지고 시술 성공률 또한 많이 향상됐다.

아주대학교병원에서는 2013년 처음으로 림프절 경유 림프조영술을 이용해 복부 수술 후 발생한 림프액 누출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유미홍(가장 큰 림프관인 흉관이 손상되어 흉관 내 유미가 빠져나와 축적되는 상태) 환자에게 흉관 색전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는데, 해당 증례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성공한 흉관 색전술 사례로 기록됐다. 역사적으로는 1998년 Cope이 수술 후 발생한 유미홍을 치료하기 위해 흉관 색전술을 시행해 첫 성공 사례를 보고했다. 이 사례는 림프관의 경피적 접근 및 림프액 유출에 대한 색전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림프계 질환에 대한 경피적 치료의 문을 열었다.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는 2014년 증례 보고 이후 2016년 림프액 누출의 경피적 치료를 위한 후향적 연구를 진행했고, 환자군에서 90% 이상의 치료 성공률을 보고했다.

림프계 인터벤션의 미래에 한발 다가서다

CT 및 MRI와 같은 단면 영상 기법이 인체의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와 질환에 대한 이해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예외적으로 림프계

영상 촬영은 이를 구성하는 구조물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림프관의 모양 및 림프액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제한이 많았다. 최근 CT와 MRI 같은 기존 단면 영상 기법과 림프절 경유 림프조영술 기법을 결합하는 시도 끝에 CT Lymphangiography 및 MR Lymphangiography가 개발됐다.

새로운 영상 기법의 탄생으로 림프계의 해부학적 구조물과 림프 질환에 대한 이해가 향상됐다. 아주대학교병원 역시 새로운 영상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및 유럽의 임상사와 협업을 시도했다.

개인적으로는 St. George's University 병원에서 영상학과 중심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유전자클리닉 등이 협업하는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처음 경험했기에 굉장한 흥미를 느꼈다. 국내에서 볼 수 없던 수준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및 영상 분석 시스템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자료를 이용해 림프 질환의 새로운 분류체계와 향상된 치료 알고리즘을 제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은 내가 이 분야의 연구를 지속하는 데 커다란 동기부여가 됐다.

영국의 St. George's University 병원과 St. Thomas 병원에서 수차례 다학제 회의에 참여하고, 림프계 인터벤션 치료 경험에 관해 발표했다. 또 영국의 의사들과 함께 국제 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소개했을 뿐 아니라 향후 공동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안고 귀국했다. 특히 림프계의 영상 기법부터 경피적 치료 방법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리뷰 논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 연수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연구진과 좋은 인

연을 맺음으로써 그들의 경험을 공유한 것은 이번 해외 연수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국에서 새롭게 쌓은 지식과 경험을 더 발전시켜 국내 림프계 영상 기법의 개발 및 경피적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해외 연수를 흔쾌히 허락해 주신 박해심 의료원장님, 한상욱 병원장님, 오영택 전 의과대학장님, 영상학과 김재근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진료와 학회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1년간 공백을 메우고 성공적 연수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원재환 교수님께 감사하고, 빈자리를 채워준 최태원 교수님께도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가까이 참여해준 소중한 분들이 있어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그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영상의학과 김진우 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울산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영상학과 부교수

전문 분야
혈관계 인터벤션, 림프계 인터벤션

book

소설로 보는 손 위생의 역사

글. 최영화 교수(감염내과)

손 위생은 비누로 손 씻기, 손 소독제가 섞인 물비누로 손 씻기,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알코올 손 소독제로 소독하기, 수술 전 팔꿈치까지 손 소독제로 닦아내는 외과적 손 씻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손의 미생물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포괄하는 용어다. 'Hand Hygiene'을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위생에 대한 추상적 이미지 때문에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말인지 머릿속에 떠올리기 어렵지만 손을 깨끗이(위생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물과 비누(또는 물비누)로 손 씻는 것을 가르칠 때는 '손 씻기'로 가르치고, 갖가지 소독제를 사용하면서 '씻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즉 물을 사용하지 않는 순간이 오면 더 큰 개념으로 '손 위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001년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현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에서 발간한 제2판 <감염관리지침>에는 손 씻기, 손 소독, 외과적 손 씻기 용어만 제시하고 있고, 2006년 교과서부터 혼재해서 사용하다가 이제는 손 위생을 큰 제목으로 두고 있다.

간혹 소설에 손 위생과 연관이 깊은 수술이나 시술 장면이 나온다. 그 순간들을 정리해봤다.

인디언 캠프(1924)

어니스트 헤밍웨이 | 현대문학 세계문학단편선 | 2013



p. 121

부엌에 있던 여자가 물이 뜨거워졌다고 했다. 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가 커다란 주전자에 든 물을 대야에 반쯤 붓고 나서, 손수건에 싸 온 여러 가지 물건들을 주전자 물에 집어넣었다. “이것들을 삶아야 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마을에서 가져온 비누를 손에다 문지른 뒤 대야의 뜨거운 물로 손을 씻었다. 닉은 비누를 문지르는 아버지의 두 손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손을 씻으며 말

했다. “닉, 아기들은 머리가 먼저 나오는 법이지만 가끔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그렇게 되면 모두에게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되지. 아마도 여자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조금 지나 보면 알게 되겠지.” 꼼꼼하게 손을 씻은 뒤 아버지는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잠시 뒤 아버지가 수술을 시작하자 조 아저씨와 세 명의 인디언 남자들이 여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들었다.



젊은 의사의 수기·모르핀(1925)

미하일 불가코프 지음 | 이병훈 옮김 | 을유문화사 | 2011



p. 32

돌체보에서 여자가 이송돼 와 있는데 난산이에요. 태아가 가로누워 있어요.

자 어디 좀 봅시다. 이때 조산사가 “의사가 손을 씻어야지요!”

떨어지는 물에 솔로 문질러 빨개진 손의 거품을 씻어 내면서 조산사가 다시 물을 따라 주고, 손에 비누칠을 하고 두꺼운 거품을 씻어 내고 손가락에 요오드를 발랐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진을 하기 시작했다.

면 북으로 가는 좁은 길(2013)

리처드 플래너건 지음 | 김승욱 옮김 | 문학동네 | 2018



p. 336

오두막의 한쪽 끝에서 그는 손을 깨끗이 씻기 시작했다. 대나무 파이프에서 꾸준히 흘러나오는 물로 기름진 피를 씻어냈다. 의사는 동료 를 불러 귀한 증류수가 담긴 깡통을 들고 탁자 옆으로 오게 한 뒤 증류수를 자신의 손에 천천히 부으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손을 씻으면서 도리고 에번스는 마음과 몸을 차분히 가라앉히려 애썼다. 그는 지금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

히려 수술 전 소독 절차에 마음을 맡기려고 애썼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철저히 씻어야 해. 난 해 낼 수 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손톱 밑도 깨끗이 씻어야 해. 손목을 씻는 것도 잊으면 안 돼. 생각하면 전부 우스운 일이지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우스꽝스러운 믿음이 필요한 법이다. 그는 자신을 타일렀다.

<인디언 캠프>는 난산 중인 산모의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당시 의사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여타 도구는 열탕소독하고 있다. <젊은 의사의 수기·모르핀>에서도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손가락에 요오드를 바르고, 산모 내진을 하고, 가로누운 아기 몸을 돌려서 꺼내는 상황이다. <면 북으로 가는 좁은 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포로가 된 호주 군인들이 태국에서 철도를 놓는 상황이 배경이다. 군의관인 대령이 괴저로 병사의 다리가 썩어가는 상황에서 변변한 도구도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데, 돼지 창자를 이용해서 수술실 대신 사용하고 궁여지책으로 증류수를 만들고 대나무로 카테터를 만드는 내용이 있다. 전쟁 중 수술에도 손을 열심히 씻고 있다. 우리는 지금 다행히 평화 속에 있다. 환자 진료는 더욱 안전해야 한다. 곳곳에 마련된 손 위생 도구들을 아낌없이 꼼꼼하게 잘 사용하라. 🧼



감염내과 최영화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학교실
주임교수 겸 임상과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주임교수
아주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장

진료 분야

에이즈, 원인불명 열, 법정전염병,
여행자 예방접종(황열 제외),
해외풍토병, 감염질환, 패혈증, 폐외결핵, 발열

진료 시간

목 오전 / 월 오후

아주대학교병원 췌장담도암센터

생존율 향상을 위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합니다

진단과 치료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췌장담도질환. 특히 췌장암과 담낭·담도암은 주요 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낮은 난치암으로 꼽힐 뿐 아니라 수술 난도가 매우 높은 축에 속한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풍부한 임상 경험과 뛰어난 술기, 내·외과 간 유기적 협진으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며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아주대학교병원 췌장담도암센터를 만나봤다.

글. 김광균 사진. 안호성



왼쪽부터
간담췌외과 정우현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정승연 교수, 소화기내과 유병무 교수, 간담췌외과 김육환 교수, 김지훈 췌장담도암센터장(간담췌외과)

왼쪽부터
종양혈액내과 강석운 교수, 영상의학과 김재근 교수, 소화기내과 황재철 교수, 병리과 이다근 교수

맞춤 치료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다

의료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췌장담도질환은 여전히 까다로운 질환으로 꼽힌다.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장기가 자리 잡고 있으며,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췌장담도질환은 양성 질환과 악성 질환으로 분류하는데 양성 질환은 췌장염·췌장낭종·담낭염·담낭담석증, 악성 질환은 췌장암과 담낭·담도암이 대표적이다. 악성 질환은 증상 발현이 늦다 보니 환자가 이상을 감지하고 병원을 찾을 때면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복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 때문에 위염이나 위경련과 같은 위장 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췌장담도암은 진단받은 환자의 20% 정도만 수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갈수록 치료 방법이 다양해지고 수술 기법이 발전하면서 아주대학교병원 췌장담도암센터의 치료 성적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2017년 1월 문을 연 아주대학교병원 췌장담도암센터는 응급환자가 많은 췌장담도질환에 대해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했다. 췌장담도암센터는 설립 취지에 맞게 환자가 내원하는 즉시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내·외과 협진을 통해 검사·진단·치료·입원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3~4일로 단축하는 골든타임 응급시스템을 구축했다.

“췌장담도질환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내·외과 간 유기적 진료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환자가 외래로 내원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검사와 진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죠. 증상이 뒤늦게 발견돼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많은데, 그럴 때 외과에서 환자 상태에 대해 즉각 보고를 받고 수술을 할지 아니면 내과적·영상학과적 시술을 시행할지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김지훈 센터장(간담췌외과)이 십이지장 종양 절제술을 집도하는 모습
 ② 로봇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인 간담췌외과 김육환 교수(오른쪽)

③ 풍선소장내시경을 이용한 췌장담도치료 내시경시술 150건 달성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한 모습(소화기내과 김진홍 교수팀)

여타 질환도 그렇지만 특히 췌장담도질환은 진료과 간의 협진과 연계가 필수적이다. 암의 위치와 진행 정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술 후에도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등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주대학교병원 췌장담도암센터는 간담췌외과, 소화기내과, 종양혈액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등의 의료진이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독보적 치료 성적으로 증명하다

아주대학교병원은 국내에서 로봇 담낭절제술을 가장 많이 시행하는 병원 중 하나로 알려질 만큼 로봇수술 분야에서 명성이 높다. 그동안 췌장담도질환으로 실시한 로봇수술은 2022년 말 기준 약 5,300건(누적)으로 그중 로봇 담낭절제술이 5,1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췌장담도질환 분야의 로봇수술 건수가 아주대학교병원 전체 로봇수술 건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로봇수술이 췌장담도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는 수술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로봇수술은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에 비해 통증이 적고 상처 부위가 작다는 점에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의사가 로봇 앞에 앉아 카메라를 보며 원하는 만큼 확대 가능한 3차원 영상을 통해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게다가 아주대학교병원 췌장담도암센터의 로봇수술은 미용적·기능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 수술법으로 ‘비키니 라인 로봇 담낭절제술’이 꼽힌다. 윗배가 아닌 아랫배를 절개해 담석증·담낭염 등 담낭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술 후 환자들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다.

외과 영역에서 수술 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췌장절제술에도 로봇수술을 적용함으로써 치료 성공률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로봇·복강경 하이브리드 수술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로봇으로만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하는 곳은 아주대학교병원 췌장담도암센터를 비롯해 손에 꼽을 정도다.

올 초 소화기내과 김진홍 교수팀은 풍선소장내시경을 이용한 고난도의 췌장담도치료 내시경시술 150건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동안 외과적 수술을 받은 췌장담도질환 환자의 상부 위장관에 구조적 변형이 일어난 경우 내시경시술을 해야 하는 일이 잦았지만, 성공률은 극히 낮았다. 김진홍 교수팀은 2020년 국내 최초 단축형 풍선소장내시경을 도입한 이후 성공적으로 내시경시술을 해왔다. 췌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100%, 위 부분 절제술을 받고 소장 재건술을 받은 환자의 97%가 내시경시술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접근이 매우 어려운 루와이 소장 재건술을 받은 환자에게서도 91%의 성공률을 달성한 만큼 향후 수술 후 해부학적 구조의 변형이 동반된 환자에게서 표준 췌장담도치료 내시경시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 제시를 위한 다각적 접근

췌장담도암센터는 암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수술부터 권하기보다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데 중점을 둔다. 장기가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있어 수술이 어려운 데다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므로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김지훈 센터장은 말한다.

“최근에는 주변 장기로의 전이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수술을 먼저 하지 않고 수술 전 항암치료로 암세포를 어느 정도 제거한 후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후에도 다양한 치료 방법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별로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지훈 센터장의 당면 과제는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로봇수술 관련 연구·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해 췌장담도질환의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 이를 통해 로봇수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의료진의 역량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수술 후 장기 생존을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췌장담도질환의 경우 위나 수술 난도가 높고 생존율이 낮은 만큼 의료진의 역량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축적해 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췌장담도암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후배 의사를 양성하는 일에도 힘쓰겠습니다.”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효과 높은 암 치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주대학교병원 김지훈 췌장담도암센터

다른 암종에 비해 악명 높은 췌장암과 담도암에 걸리면 치료 전부터 절망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환자분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암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수술부터 시행했고, 재발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 안전하게 수술한 후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췌장담도암센터는 환자의 불안한 마음과 고통에 먼저 공감하며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테니, 환자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지훈 췌장담도암센터장(간담췌외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연수
 아주대학교병원 로봇수술위원장 역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간담췌외과 임상과장
 아주대학교병원 췌장담도암센터장

진료 분야
 담낭·담도·췌장질환의 복강경 및 로봇수술

진료 시간
 월·수·오전

부모라는 역할이 지닌 무게

모리조 '요람'



'요람', 베르트 모리조, 1872년, 캔버스에 유채, 56×46cm, 오르세 미술관, 파리

'가정의 달' 5월은 사실 대다수 사람에게 부담스러운 달이다. 아이들은 어린이날 선물을 기대하고, 부모님께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작은 성의라도 보여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는 스승의 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말은 '가정의 달'인데, 정작 가정을 이루고 사는 성인에게는 즐거움보다 부담이 더 큰 게 5월이 갖는 딜레마가 아닐까 싶다.

글. 전원경 예술 전문 작가,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5월에 챙겨야 하는 기념일 때문에 느끼는 부담은 대부분 내가 '부모'가 됐기 때문에 생긴다. 이처럼 부모가 되어 산다는 것은 많은 부담을 기꺼이 짊어진다는 뜻이다. 단순히 금전적 부담뿐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른이 된다고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출산율이 우려할 만큼 떨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부담, 즉 부모가 된다는 무게감을 회피하려는 젊은 층이 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베르트 모리조(Berthe Morisot, 1841~1895)가 그린 '요람'은 놀라울 정도로 솔직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람'은 제목처럼 요람 속에서 곤히 잠든 아기와 이를 바라보는 엄마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히 엄마와 아기를 그린 아름답고 평온한 그림이 아니다. 오히려 엄마가 된 젊은 여성이 느끼는 부담감, 즉 '어떻게 하면 이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이 아기에겐 어떤 희생과 사랑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을 담아낸 듯싶다. 말하자면 이 작품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고전파를 거치며 화가들이 끊임없이 그려온 주제인 성모와 아기 예수처럼 엄마와 아기를 이상적으로만 묘사한 게 아니라, 모자(또는 모녀) 관계의 영원한 숙명을 담담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재현해냈다. 그림의 모델은 화가의 언니인 에드마와 그녀의 갓난 딸 블랑슈다.

'요람' 속에는 엄마와 아기 사이의 강한 유대감과 엄마의 불안감을 상징하는 여러 장치와 메시지가 보일 듯 말 듯 숨어 있다. 엄마인 에드마는 아기를 바라보며 왼팔을 구부려 자신의 뺨에 대고 있는데, 아기 역시 엄마처럼 팔을 구부린 채로 잠들어 있다. 두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취하고 있는 똑같은 포즈는 아기와 엄마가 한 몸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듯하다. 또 고개를 반쯤 돌린 채 잠든 아기의 눈을 아기와 엄마 뒤편에 처진 커튼에 연결해보면 그림 전체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대각선이 나타난다. 이 대각선으로 인해 자칫 심심할 수도 있는 그림에 묘한 긴장감이 감돈다. 요람 주위의 반투명 흰색 커튼은 그림을 보는 관객과 아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 커튼은 갓난아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려는 엄마의 모성 본능을 표현하는 동시에 아기와 엄마 사이의 강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러한 장치들 못지않게 확연히 보이는 것은 검정 옷을 맵시 있게 입은 에드마의 얼굴에 서려 있는 그늘이다. 아직 세상 물정도 제대로 모를 듯한 이 젊은 여성은 자신이 아기의 온전한 보호자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한다. 엄마가 됐다는 현실과 맞닥뜨리며 그녀는 걱정과 부담감을 감추지 못한다. 전반적으로 안온한 가운데 모성의 숙명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는 작품이 바로 '요람'이다. 이 그림

을 그린 화가 베르트 모리조가 여성이었기에 이처럼 섬세하고 내밀한 표현이 가능했을 것이다.

인상파 전시의 여성 화가들

모네, 르누아르, 피사로, 드가 등 19세기 중반부터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일군의 인상파 그림 중 여성 화가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19세기 후반까지도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유럽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었다. 소위 '양갓집 규수'가 직업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당시의 통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모리조는 어린 시절부터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당시 여학생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학교는 거의 없었다. 그녀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혼자 고전 명작들을 베껴 그리다가 '폴발 위의 점심', '올랭피아' 등을 그린 파리 화단의 반항아 에두아르 마네를 만난다. 마네의 지도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걷게 된 모리조는 스물세 살에 프랑스의 국전 살롱전에 입선한다. 모리조는 1874년 마네의 동생이자 화가인 외젠 마네와 결혼했다.

에두아르 마네는 화가로서 모리조에게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리조가 마네를 무조건 따른 것은 아니다. 매년 살롱에 작품을 출품하던 그녀는 1874년 모네가 주도한 첫 번째 인상파전에 피사로, 르누아르, 시슬레 등과 함께 참가했다. 당시 마네는 이 전시에 참가하지 않았을 뿐더러 모리조의 참가도 반대했다. 아웃사이더들의 모임 격인 인상파 전시에 참가하면 살롱전 같은 제도권 미술과는 영원히 등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네의 생각이었다. 모리조는 스승이자 시숙이 된 마네의 충고를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1878년 한 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상파 전시에 열심히 작품을 출품했다. 1879년 미국에서 파리로 유학 온 메리 카삿이 인상파 전시에 참여하면서 인상파 여성 화가는 모리조와 카삿 두 명으로 늘어났다.

'요람'은 모리조가 1874년 첫 번째 인상파전에 출품한 세 작품 중 하나다. 인상파전이 일으킨 떠들썩한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의 그림을 주목한 이는 거의 없었다. 전시에서 팔리지 않은 '요람'은 계속 모리조의 소유로 남았다. 1895년 모리조가 54세에 세상을 떠난 후부터 서서히 인상파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후해지기 시작했다. 1930년 루브르 박물관이 모리조와 외젠 마네 부부의 딸 줄리 마네에게서 '요람'을 사들였다. 1848년 이후의 그림들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오르세 미술관으로 옮겨지면서 '요람'은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등 인상파 동료 화가의 작품과 함께 파리 오르세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들깨 알레르기 조심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이수영·정경옥 교수팀



소아청소년과 이수영 교수



소아청소년과 정경옥 교수

국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들깨가 중증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식품으로 확인됐다.

소아청소년과 이수영·정경옥 교수팀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아주대학교병원 등 2개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한 환자 중 들깨 섭취 또는 노출 후 2시간 이내 급성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21명의 임상적 특성을 조사했다. 환자 21명의 중위 연령은 만 3세(연령 범위 14개월~10세, 남자 14명)였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환자 21명 중 28.6%에 해당하는 6명이 들깨에 의한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식품이나 약물 등에 노출 즉시 또는 수 분에서 수 시간 내에 갑자기 전신에 발생하는 심한 알레르기반응으로,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21명 중 15명(71.4%)이 아토피피부염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 비염(4명, 19%)과 천식(2명, 9.5%) 순으로 동반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명(85.7%)이 들깨 이외의 다른 식품알레르기가 있었으며, 이 중 14명이 땅콩·견과류·과일·곡물 등 식물성 식품에 의한 알레르기였다.

연구팀은 특히 임상 특성 연구에서 더 나아가 들깨 단백을 추출해 진단용 피부반응검사 시약을 자체적으로 제조했으며, 추출한 단백을 이용해 효소면역측정법(ELISA)과 IgE(면역글로불린 E) 면역블롯을 시행했다. 또한 연구팀이 제조한 시약을 이용해 들깨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한 15명 모두 양성반응을 보였다.

연구팀은 단순 증례보고 이외에 연구가 전혀 이뤄진 적 없는 들깨 알레르기에 대해 임상 특성뿐 아니라 면역학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보고한 세계 첫 연구이며, 들깨 올레오신이 주요 알레르겐 중 하나일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수영 교수는 “들깨는 오래전부터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아청소년에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식품임을 확인한 만큼 가정에서 자녀에게 처음 들깨를 먹일 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Journal of Investigational Allergology and Clinical Immunology>(IF 8.185)에 ‘Clinical and Immunological Characterization of Perilla Seed Allergy in Children(소아 들깨 알레르기의 임상 및 면역학적 특성 규명)’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

청소년 ADHD 치료 약물과 항우울제 병용 안전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신윤미 교수·의료정보학교실 박래웅 교수팀



정신건강의학과 신윤미 교수



의료정보학교실 박래웅 교수

청소년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 약물과 항우울제를 병용해도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신건강의학과 신윤미 교수와 의료정보학교실 박래웅 교수(김청수 연구원, 이동운 전문의) 연구팀은 대규모 환자 빅데이터를 활용해 청소년 ADHD 치료 약물과 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우울 약물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이하 SSRI)를 병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전 국민 ADHD 코호트 약 33만 명 중 9,663명을 선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ADHD 치료 약물 메틸페니데이트 단독 사용군과 메틸페니데이트 및 SSRI 병용 사용군 두 그룹으로 나눠 신경정신학적, 심혈관, 기타 부작용 발생 위험을 비교함으로써 안전성을 확인했다. 신경정신학적 부작용은 정신증·조증·틱장애·자살 경향 등, 심혈관 부작용은 고혈압·부정맥 등, 기타 부작용은 외상·위장장애 등의 발생 위험을 의미한다. 확인 결과 두 그룹 간 주요 신경정신학적, 심혈관, 기타 부작용의 위험성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청소년 ADHD의 경우 여러 신경정신학적 동반 장애를 함께 관리할 것을 권고하는데, 그 대표적 동반 질환이 바로 우울장애다. ADHD와 우울장애가 동반되는 경우 학습 능력이나 사회적 기능에 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한다.

두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하지만, 그동안 약물 병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약물 이상 반응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 치료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우울장애를 동반한 청소년 ADHD 환자의 약물 병용 치료의 안전성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신윤미 교수는 “이번 연구는 청소년 ADHD 환자를 대상으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병용에 대한 안전성을 전례 없는 대규모 연구를 통해 입증한 것”이라고 밝히며 “실제 임상 환자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ADHD 및 우울장애 동반 청소년 환자의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Psychological Medicine>(IF 10.592)에 ‘Safety Outcomes of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in Adolescent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with Comorbid Depression: the ASSURE Study(우울증 동반 청소년 ADHD 환자의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사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 ASSURE 연구)’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

수면무호흡, 수면다원검사 아닌 비접촉식으로 간편하게 진단



이비인후과 김현준 교수팀



이비인후과 김현준 교수

수면무호흡을 비접촉 방식으로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비인후과 김현준 교수팀(박도양 교수·안준영 연구원,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 신현준 교수·양명현 연구원)은 수면호흡장애가 있는 50명을 대상으로 수면다원검사 결과와 가스 이미징 적외선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호흡 기류 촬영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호흡 센서를 적외선 영상 촬영으로 대체하더라도 기존 검사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적외선 영상 촬영만으로도 수면무호흡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사람이 호흡할 때 공기를 체내로 받아들이고 이를 대사한 후 체외로 배출할 때 이산화탄소(CO₂)가 대기 중에 있는 CO₂에 비해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 CO₂ 고유 파장대를 촬영하는 ‘가스 이미징 적외선카메라’로 호흡 기류를 촬영했다. 연구팀은 이렇게 촬영한 호흡 기류 영상을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안면 인식 및 화질 개선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에 적용함으로써 검사 대상자의 호흡 여부, 호흡량의 정량화 등을 측정했다. 연구팀은 이와 같은 비접촉식 적외선 가스 영상 시스템을 국내 및 미국에 특허 등록했다. 수면무호흡·코골이 등과 같은 수면호흡장애를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진단법은 수면다원검사지만, 병원 검사실을 방문해 몸에 다양한 센서를 붙이고 하룻밤 자면서 뇌파·근전도 등을 다양하게 측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최근에는 수면 상태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손목에 차는 시계 형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코골이 소리와 뒤척이는 잠음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건강에 나쁜 수면무호흡은 소리가 없기 때문에 정상 호흡으로 진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김현준 교수는 “환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수면호흡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번 연구를 통해 비접촉 방식으로 비교적 우수하게 수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라면서 “향후 수면무호흡의 진단뿐 아니라 원격으로 노인이나 환자·영유아 등을 모니터링하거나 호흡기질환을 스크리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전략과제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개발기술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으며, 연구 결과는 <Scientific Reports>에 ‘Non-Contact Diagnosis of Sleep Breathing Disorders Using Infrared Optical Gas Imaging: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적외선 광학 가스 영상을 이용한 수면호흡장애의 비접촉 진단: 전향적 관찰 연구)’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

AUMC NEWS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중심병원 정책지원센터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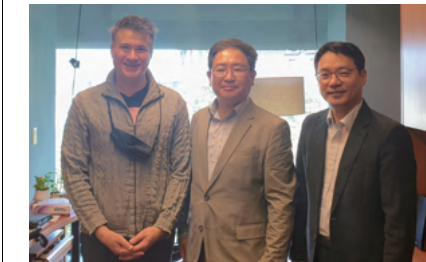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의료 현장 중심의 다학제 융합연구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건의료 R&D 수행에 최적화된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10개 연구중심병원 중 최초로 ‘연구중심병원 정책지원센터(센터장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를 개소했다. 연구중심병원 정책지원센터는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연구중심병원·스마트병원·데이터병원·디지털병원 등 연구 생태계 혁신 거점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보건의료 R&D 정책 기획, 조사 분석, 사업화 지원 등 전주기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주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아주대학교병원이 3월 31일 개최된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5주년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환자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주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및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등록 기관으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홍보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에 해당 제도를 확산·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했다.

의과대학, 국제 공동연구 심포지엄 개최



의과대학이 3월 7일 오키나와 과학기술원(OIST)과 국제 공동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기명 의과대학장과 니컬러스 러스컴(Nicholas Luscombe) OIST 연구학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뇌과학 및 분자의학 분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상호 연구 교류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기명 의과대학장은 “OIST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중개 의학 연구자들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이 연구 분야에서 큰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응급의학 세부 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아주대학교병원이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지정 소아응급의학 세부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소아응급의학 세부 전문의 수련을 시행한다. 소아응급의학은 소아청소년의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전문 분야로, 전공의가 아닌 세부 전문의가 특화된 응급진료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는 현재 소아 응급 분야 전문의 8명이 매일 24시간 소아청소년 응급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이번 지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소아 응급 전문분야에 기여할 전망이다.

첨단의학연구원, ‘의료질 평가’ 관련 우수 교실·교원 시상



첨단의학연구원이 3월 20일 보건복지부 ‘의료질 평가’ 지표 중 연구개발 평가 영역 실적 향상에 공헌한 교실과 교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교실 내 연구자 전원이 IRB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최다 IRB 승인 건수를 기록한 피부과학교실이 우수 교실로, 미생물학교실 손성향·이비인후과학교실 정연훈·치과학교실 김희경 교수가 지식재산권 수 우수 교원으로 선정됐다.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은 “고무적 성과를 창출한 모든 연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연구 지원 제도를 보완·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혈관중재시술팀, 혈관성형술 1만5,000례 달성



아주대학교병원 혈관중재시술팀(영상의학과 원제한·김진우 교수)이 상·하지 혈관성형술 1만5,000례를 달성했다. 혈관성형술은 말초동맥이 막히거나 혈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가느다란 카테터를 상·하지의 좁아진 혈관 부위까지 삽입해 풍선 혹은 스텐트로 막힌 혈관을 넓혀 혈류를 개선하는 시술이다. 원제한 교수는 “고령인구 및 당뇨병 환자 증가로 혈관성형술이 필요한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팀원들과 함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밝혔다. 한편 혈관중재시술팀의 시술 성공률은 98%에 달하며, 이는 세계적 수준이다.

**임용철 교수,
뇌동맥류 수술 3,000례 달성**



신경외과 임용철 교수가 3월 7일 뇌동맥류 수술 3,000례를 달성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 일부가 약해져 풍선 혹은 파리처럼 얇게 부풀어오르는 질환이다. 임용철 교수는 2008년 9월 처음 뇌동맥류 수술을 시작해 2019년 7월 2,000례를 돌파했으며, 이후 3년 8개월 만에 누적 수술 건수 총 3,000례(클립결찰술 1,160건, 코일색전술 1,840건)를 달성했다. 임용철 교수는 “3,000례 달성은 365일 응급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15여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임의와 전담 간호사 등이 팀워크를 이뤄 노력한 결과로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경기지역암센터,
‘제16회 암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아주대학교병원 경기지역암센터가 주관하고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16회 암 예방의 날’ 기념행사가 3월 24일 개최됐다. 매년 암 예방의 날(3월 21일)에는 암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 암 예방 10대 수칙 낭독 △지역 암 관리 사업 유공자 시상 △2022년 지역 암 관리 사업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장석준 경기지역암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암 예방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담회 개최**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가 4월 10일 한국 보건산업진흥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산 의료기기 발전 및 사용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임상현 소장·이일재 부소장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 산업단 황성은 단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병원-기업 간 연계를 통한 국산 의료기기 신뢰도 향상 전략 △선진국 인허가 강화 대응을 위한 해외 임상 실증 지원 △사용 적합성 평가 CE-MDR 인증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기기 전 주 기업 사업을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권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
2022년 국가 암 관리사업 우수사례 선정**



아주대학교병원 경기권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가 3월 21일 보건복지부 주관 ‘제16회 암 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2년도 국가 암 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분야에서 ‘암 생존자 생활권 중심 맞춤형 통합지지 서비스 확산’을 주제로 △전문 인력의 암 생존자 심층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재가 암 환자 대상 맞춤형 통합 지지 서비스 지원 등 분야별 인력 교육 운영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센터의 전연간 간호사는 국가 단위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 정착 및 지역사회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UCSF 치과대학 치과교정과 전공의,
아주대학교 방문**



미국 UCSF(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치과대학 치과교정과(과장 Christine Hong 교수) 전공의들이 4월 13일 아주대학교를 방문해 임상치의학대학원과 치과병원을 견학하고 교육 커리큘럼에 참가했다. UCSF는 의학·생명과학 분야에 특화된 전통 있는 명문 대학으로, 특히 의학·약학·치의학·간호학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임상치의학대학원생과 치과병원 전공의는 정기적으로 UCSF 치과대학 커리큘럼에 참가할 예정이며, 아주대학교 치과병원 학술대회에 UCSF 교수진과 전공의를 초청하는 등 학술 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실시**



아주대학교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가 4월 12~13일간 상반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을 통해 45명의 인력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자원봉사 희망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지적 역할과 말기 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암의 이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개요 및 운영 △연명의료 결정제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희망할 경우 권역별호스피스센터가 주최하는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의 실습 교육을 통해 활동 가능하다.

**의료원 최고위자과정 총동문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 열려**



아주대학교의료원 최고위자과정 총동문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이 3월 6일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축하 영상으로 대신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승원 국회의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추호석 이사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문회 창립과 초대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초대회장에 취임한 이삼구 회장((주)해동산전 대표이사)은 “경기도 대표 의료기관인 아주대학교의료원을 거점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함께 성장·발전하는 총동문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총동문회 창립을 기념해 총동문회 운영진은 의료원 발전기금 6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위교 교수,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차기 회장 선출**



이위교 교수(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이위교 교수가 제27대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다. 1987년 임상미생물연구회로 출발해 1998년 9월 창립된 대한임상미생물학회는 감염학·미생물학·기생충학 등의 분야에서 관련 연구,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발간, 임상 미생물 검사 전문가 양성을 비롯해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위기에서 국내 임상 미생물학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된 이위교 교수의 전문 진료 분야는 임상 미생물학·병원감염·항균제 내성균이다.

수상 소식

**가정의학과,
춘계 가정의학회 학술대회
공로상 수상**

가정의학과가 4월 14~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년 춘계 가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가정의학과는 ‘기능의학의 메카, 아주대병원을 가다’라는 병원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타 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기능의학적 평가 및 치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외래 탐방 기회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했다. 한편 가정의학과는 20여 년 전부터 첨단기능의학회를 최초로 개설해 현재의 대한기능의학회(이사장 가정의학과 김광민 교수)로 발전시켜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의학적 평가·관리를 통한 환자 중심·원인 중심 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관심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장정훈 교수,
대한이과학회 학술대회
최우수연제상 수상**

이비인후과 장정훈 교수가 대한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자유 연제 부문 최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연제 제목은 ‘Vascular Distribution Imaging of the External Ear Using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다. 연구팀은 광간섭 단층촬영 혈관 이미징 기법을 통해 획득한 외이개-외이도 입구 부위 미세혈관 분포지도가 히어러블 기기의 측정 센서 위치 선정에 유용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은소 교수,
대한피부연구학회 심포지엄
학술상 수상**

피부과 이은소 교수가 3월 25일 세브란스병원 에비슨의생명 연구센터에서 열린 대한피부연구학회 심포지엄(2023 KSID Symposium)에서 KSID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피부연구학회 회원 중 피부와 피부 부속기의 기능과 구조의 이해에 관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이룬 연구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날 이은소 교수는 시상 후 ‘베체트병 면역 발병기전과 염증성질환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다.

**홍성연 교수,
두산연강 간담체외과
학술상 수상**

간담체외과 홍성연 교수가 ‘2023 두산연강 간담체외과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두산연강재단이 국내 간담체외과학 발전과 외과 의사의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해 올해 처음 제정해 시상한 상이다. 홍성연 교수는 ‘한국 중앙 암 등록 통계자료를 이용한 간암의 유병률, 사망률, 생존율 통계: 1999년부터 2019년까지’라는 논문을 통해 간암의 최신 역학 통계를 새로 작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했다.

**이성준 교수,
대한뇌졸중학회 춘계학술대회
젊은 연구자상 수상**

신경과 이성준 교수가 4월 21일 2023년 대한뇌졸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뇌졸중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젊은 연구자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성준 교수는 2022년 ‘뇌혈관 병리의 병태 생리와 내피 기능 및 혈관 경직도와의 연관성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을 유수의 저널에 발표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육종클리닉' 개설

4월 7일 첫 모임 갖고 본격 운영 들어가



(왼쪽부터) 위장관외과 부여진 임상강사, 조윤화 코디네이터, 정형외과 이한동 교수, 이식혈관외과 방준배 교수, 위장관외과 송정호·허훈 교수, 정형외과 정남수 교수, 중앙혈액내과 권민석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조오연 교수, 위장관외과 손상용 교수, 병리와 김석희 교수

아주대학교병원이 육종클리닉을 개설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육종은 지방·근육·혈관·뼈·신경 등 신체 각종 부위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국내 발생률은 높지 않으나 팔다리와 후복막 등에 발생해 치료가 매우 까다로우며, 수술적 절제 후 삶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수술 후 전이 및 재발 확률이 높은 조직학적 특징을 보이는 육종의 경우 보조적인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가 필요하므로 정형외과, 외과뿐 아니라 방사선종양학과, 중앙혈액내과 등 다양한 진료과 간 다학제적 접근을 요구한다.

아주대학교병원 육종클리닉은 4월 7일 개최한 1차 모임에서 육종 치료 현황과 클리닉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육종클리닉에서는 위장관외과, 이식혈관외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다학제 진료를 진행하고 수술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중앙혈액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도 함께 팀을 꾸려 환자의 증상과 영상 및 병리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체계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장관외과 허훈 교수는 “육종의 종류와 임상 상황에 따라 수술 전후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사지 및 복부에 발생한 육종은 본래 장기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근치적 수술을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육종클리닉에서는 육종을 조기에 진단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아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료협력센터 소식

아주대학교병원은 지역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병원 제도와 협진 병·의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2023년 4월 1일 기준, 협력병원 607개소, 협진 병·의원 1,273개소, 총 1,880개소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문의**
- e-mail: ajoureferral@aumc.ac.kr
- TEL: 031-219-4646
- FAX: 031-219-4647



신규 협력 병·의원

병원	원장	병원	원장
365그린가족의원	장준원	수지퍼스트내과의원	이선홍
고잔제일소아과의원	김완주	아이고운소아청소년과의원	이지연
공주노인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인성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	오익환
광주종로의원	구대현	에스더의원	김창영
꾸러기소아청소년과의원	김년천	연세우리병원	염준섭
더라움의원	신동훈	연세튼튼마취통증의학과의원	박희준
두리이비인후과의원	신재민	우현병원	강진우
바른마디병원	김재훈	울릉군보건의료원	김영현
방그레병원	강경문	장편한현내과의원	박현영
삼성봄그린산부인과의원	이혜연	타임피부과의원	여광열
삼성봄내과의원	이민상	평촌서울안과의원	정두석
삼성올바른외과의원	박상훈	한양류마유내과의원	유현승
새힘정형외과의원	임종준	행복주주의원	홍종우
수원아이온소아치과치과의원	최수지		

신규 협진 의사

병원	원장	병원	원장
눈애안과의원	황진영	오산산부인과의원	남선미
밝은안과의원(오산)	이장훈	우면필산부인과의원	이승현
베스트손내과의원	안소현	위드유내과의원	유승박
비전성모내과의원	장한별	위드유내과의원	김경진
세교서울이비인후과의원	나우성	위드유내과의원	전승현
속편한내과의원(오산)	김명진	화성중앙종합병원	최일
아이고운소아청소년과의원	이효성	화성중앙종합병원	김민호
오산산부인과의원	김종오		

건강한 일상을 당신과 함께 만듭니다

위드유내과

인과(因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다. 위드유내과에는 사람(人)과 결과(果)가 존재한다. 모든 행동이 사람, 환자로부터 비롯된 위드유내과는 환자 중심 경영을 통해 진료와 친절의 깊이를 더하며 '가장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진화하고 있다.

글. 이성미 사진. 이성원



왼쪽부터
(위) 임윤혁·전승현 원장
(아래) 이경은·유승박·김경진 원장

Always With You, 지역민과 함께한 25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위안을 얻는다. 위드유내과도 그런 존재다. 유승박 원장은 1997년부터 25년 넘게 수원 팔달구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져왔다. 최근 병원명을 바꾸고 규모와 시설도 예전과는 달라졌지만, 유승박 원장을 비롯한 의료진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환자를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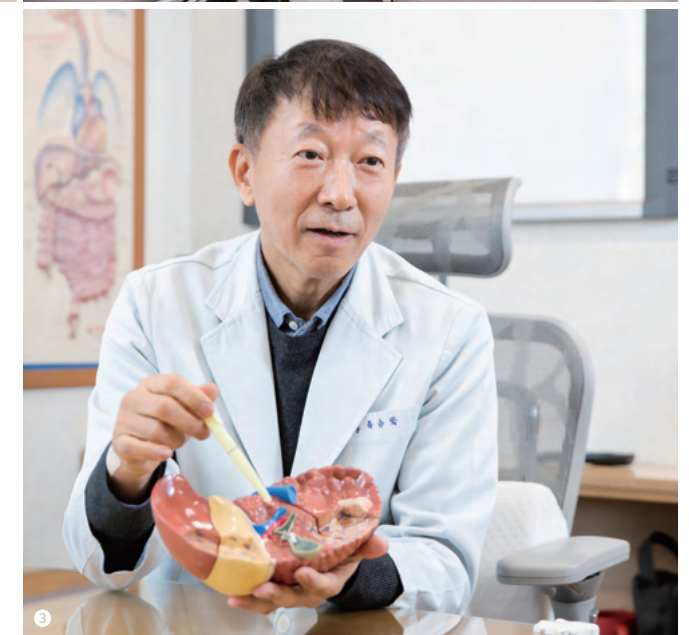
위드유내과에서는 유승박·김경진·임윤혁·전승현·이경은 원장 등 내과 전문의 5명과 직원 26명이 합심해 환자를 돌본다. 소화기 내과 위·대장내시경,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질환 등을 전문으로 다루며,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는 내시경실, 초음파실, 골밀도검사실, 자궁검진실 등이 있고, 내시경은 글로벌 의료기기인 올림푸스(Olympus), 초음파는 GE

헬스케어 제품을 사용한다. 다수의 전문 인력과 최신 장비를 갖추었음에도 유승박 원장은 “스펙보다 환자와의 소통이 우리 병원의 자랑”이라고 말한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불면증, 소화장애, 두통 등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기도 하지만 한 명의 이웃으로서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위드유내과 의료진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람 중심 경영의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평소 유승박 원장은 두 명의 간호사와 함께 환자를 만난다. 고령층 환자의 이야기를 최대한 귀담아듣고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어르신 환자 대부분이 난청을 앓고 계세요. 난청 환자에게는 낮은 음역인 남성의 목소리보다 높은 음역의 여성 목소리가 더 잘



①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위드유내과 의료진과 직원들의 모습
② 글로벌 의료기기를 갖춘 위드유내과의 내시경실
③ 환자에게 질환에 대해 상세히 설명 중인 유승박 원장

전달되고요. 그래서 어르신이 병원에 오시면 진료를 돕는 간호사와 제 말을 전달해주는 간호사, 이렇게 두 명의 간호사가 진료실에 함께 들어옵니다. 어르신들은 몸을 살피는 만큼 마음을 살피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환자의 목소리에 따라 진화하는 병원

공간과 진료 시스템에서도 환자를 향하는 마음이 여실히 느껴진다. 위드유내과 건강검진센터는 침상 수를 늘리는 대신 모든 검사실을 단독 공간으로 분리하고 휴게 공간을 더 넓혔을 뿐 아니라 윈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에서는 만 20세 여성부터 기본 건강검진과 자궁경부암 검사를 격년으로 지원하는데, 대부분 내과에서는 기본 건강검진만 받을 수 있어 여성 환자가 산부인과에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위드유내과는 지난해 부임한 이경은 원장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진 원장은 “직원들이 환자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은 결과”라고 말한다.

“평소 의료진과 직원들이 환자가 어떤 불편을 느끼는지 듣고 늘고 민합니다. 함께 의견을 나눈 덕분에 오늘과 같은 발전이 있었어요. 항상 환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원내 구성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큼니다.”

환자를 향한 마음은 아주대학교병원과 위드유내과가 똑 닮아 있다. 아주대학교병원과 위드유내과는 2004년부터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유승박 원장은 환자의 건강을 챙기는 순간순간 아주대학교병원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느낀다.

“오래전 갑상선 조직 병리검사서 양성종양 소견이 나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환자 편에 진료 의뢰서와 영상 자료 등을 전달했는데, 다행히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빠르게 치료받았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위드유내과는 아주대학교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증증도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적극

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위드유내과는 아주대학교 요양병원과 함께 수원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란 노인들이 병원이나 기타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건강·요양·돌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모두가 노인에게 등을 보이며 달려가는 세상에서 위드유내과는 그들 옆에서 속도와 높낮이를 맞추고 있다. 지금처럼만 환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묵묵히 곁을 가는 위드유내과가 되길 바란다. 🏡

INFORMATION

위드유내과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84 화서프라자 203-204-303호
연락처 031-241-1997

아주 행복한 사랑 나눔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모금 후원액

461,065,810원

(2023. 2. 1. ~ 2023. 3. 31.)

의료원 발전기금 383,030,810원

신규 기부자 303,020,010원

- 고려개발(주) 대표 최경숙 5천만 원(최고위자과정 4기생)
- 드림포워드(주) 대표 김종희 3천만 원(최고위자과정 4기생)
- 녹십자셀 부회장 이득주 3천만 원
- 유엘개발(주) 대표 김응렬 3천만 원(5천만 원 약정)
- 홍혜순 님 2천5백만 원(최고위자과정 4기생)
- 응급의학과 조준필 교수 2천만 원
- (주)해동산전 대표 이삼구 2천만 원
- 권혁호내과의원장 2천만 원
- 동문 유영숙 님 2천만 원(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 남도예찬 대표 김정복 1천만 원(최고위자과정 3기생)
- (주)에이알씨코리아 대표 김하동 1천만 원(최고위자과정 3기생)
- 환자 보호자 움찬의원장 현상윤 1천만 원
- 환자 박현주 님 1천만 원
- 환자 보호자 석은주 님 1천만 원
- (주)엠텍솔루션 대표 손한인 5백만 원(최고위자과정 1기생)
- 동문 수병원장 김준용 1백만 원(정형외과 카데바 실습 지원)
- 환자 김용구 님 1백만 원
- 환자 박도는 님 30만 원
- 간호대학 하지연 교수 10만 원(1천만 원 약정)
- 김광환 님 2만 원
- 무기명 600,010원

정년퇴임 교직원 기부자 61,000,000원

- 직업환경의학과 이경종 교수 5천만 원
- 정신건강의학교실 임기영 교수 1천만 원 (아주큰나무정신건강의학과의원 개원)
- 재활의학과 기사 김행란 1백만 원

분납 기부자 19,010,800원

권역외상센터 발전기금 1,940,000원

신규 기부자

- 박진우 님 1백만 원
- 이한솔 님 10만 원

분납 기부자 84만 원

장학기금 7,155,000원

분납 기부자 의대교수장학기금 715만5천 원

의과대학 발전기금 5,200,000원

신규 기부자 호흡기내과학교실 신승수 교수 5백만 원

분납 기부자 20만 원

간호대학 발전기금 2,820,000원

신규 기부자 간호대학 유미애 교수 1백만 원

분납 기부자 182만 원

완화의료센터 발전기금 20,000원

분납 기부자 2만 원

신관건축기금 60,000,000원

신규 기부자(최고위자과정 총동문회 임원)

- 이삼구 님 3천만 원
- 권영목 님 1천만 원
- 김종희 님 5백만 원
- 홍혜순 님 5백만 원
- 유중수 님 5백만 원
- 김치곤 님 5백만 원

기타 기금 900,000원

교실 분납 기부자 90만 원

‘1·1·1 캠페인’ 교직원 참여자 310명

(2023. 3. 31.)

‘1·1·1 캠페인’은 1인·1월·1만 원 이상을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기부입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문의처 발전기금 후원회 031-219-4000

아주사회사업기금 모금 후원액

34,105,525원

(2023. 2. 1. ~ 2023. 3. 31.)

나눔 소식

올롱가(가명)는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으로 본국의 장학생 지원을 받아 국내 소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으로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했는데 폐 종괴, 임파선 비대, 흉벽 종괴, 폐결핵 의증이 있어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유학생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검사비 전부를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올롱가의 부모님도 생활이 여의치 않아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없었습니다.

아주사회사업기금은 국내외 취약계층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롱가의 진료비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추호석 이사장의 후원금을 연계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올롱가는 작게나마 후원자에게 감사의 뜻을 보내고 싶다며 작은 초콜릿을 곁게 포장해 편지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환자의 편지에 크게 감동받은 후원자는 “작은 후원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아주사회사업기금 후원자

- 신규 후원자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장 추호석 100만 원, 김○○·정○○ 부부 150만 원, 아주대학교 치열업치토인형제적팀 50만 원, 나에선 님 월 3만 원(3년 약정), 수술간호팀 이윤희 월 1만 원(2년 약정)

후원 방법

현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 형태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시 각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아주대학교의료원)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무통장 입금 KB국민은행 593537-01-001999

•안내전화 발전기금 후원회 031-219-4000

의과대학 발전기금

•무통장 입금 KB국민은행 287937-00-001671

•안내전화 의과대학 교학팀 031-219-5017

간호대학 발전기금

•무통장 입금 KB국민은행 287937-00-001671

•안내전화 간호대학 교학팀 031-219-7007

아주사회사업기금

•무통장 입금 KB국민은행 593537-01-002079

•안내전화 사회사업팀 031-219-4747

후원자 예우

1백만원 이상 •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5백만원 이상 • 차량 무료 주차 등록(1년)
•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1천만원 이상 • 차량 무료 주차 등록(3년)
•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 진료비 감면(기부금의 15%)
• 진료 편의 제공(3년, 외래·입원 편의)

3천만원 이상 • 차량 무료 주차 등록(3년)
•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 진료비 감면(기부금의 15%)
• 진료 편의 제공(5년, 외래·입원 편의 및 전담 직원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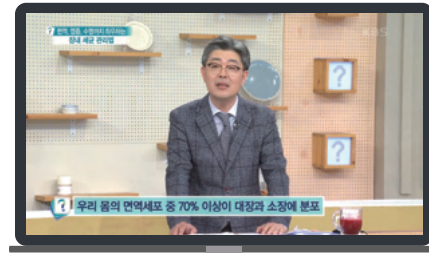
5천만원 이상 • 종합건강검진 무료 쿠폰 증정(1매 1회)
• 차량 무료 주차 등록(평생)
• 무료 발레파킹 스티커 발급(평생)
•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 진료비 감면(기부금의 15%)
• 진료 편의 제공(7년, 외래·입원 편의 및 전담 직원 동행)

1억원 이상 • 종합건강검진 무료 쿠폰 증정(1억 원당 2매, 1년씩)
• 차량 무료 주차 등록(평생)
• 무료 발레파킹 스티커 발급(평생)
• 건물 또는 실명 명명
•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 진료비 감면(기부금의 15%)
• 진료 편의 제공(10년, 외래·입원 편의 및 전담 직원 동행)
•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비용 감면(1억~2억 원: 50%, 2억 원 이상: 무료)

3억원 이상 • 종합건강검진 무료 쿠폰 증정(1억 원당 2매, 3회)
• 차량 무료 주차 등록(평생)
• 무료 발레파킹 스티커 발급(평생)
• 건물 또는 실명 명명
•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 진료비 감면(기부금의 15%)
• 진료 편의 제공(20년, 외래·입원 편의 및 전담 직원 동행)
•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비용 감면(무료)

10억원 이상 • 종합건강검진 무료 쿠폰 증정(평생)
• 차량 무료 주차 등록(평생)
• 무료 발레파킹 스티커 발급(평생)
• 건물 또는 실명 명명
•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 진료비 감면(기부금의 15%)
• 진료 편의 제공(평생)
•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비용 감면(무료)

TV 언론에 소개된 아주대학교의료원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3.04.12.)

면역, 염증, 수명까지 좌우하는 장내세균 관리법
소화기내과 신성재 교수
전문 진료 분야 위·대장질환, 대장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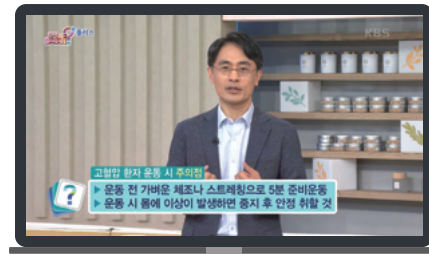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3.03.09.)

생로병사의 축소판 손발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
재활의학과 윤승현 교수
전문 진료 분야 근골격계재활(오십견, 요통, 경추통, 무릎 및 족부손상, 스포츠손상), 암재활(암 관련 근골격계질환, 암성통증, 부종), 척추손상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3.03.23.)

매일 하면 10년 더 젊어지고 통증도 잡는 맞춤 스트레칭
재활의학과 윤승현 교수
전문 진료 분야 근골격계재활(오십견, 요통, 경추통, 무릎 및 족부손상, 스포츠손상), 암재활(암 관련 근골격계질환, 암성통증, 부종), 척추손상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3.04.14.)

장수의 비결 파헤치 워킹!
재활의학과 윤승현 교수
전문 진료 분야 근골격계재활(오십견, 요통, 경추통, 무릎 및 족부손상, 스포츠손상), 암재활(암 관련 근골격계질환, 암성통증, 부종), 척추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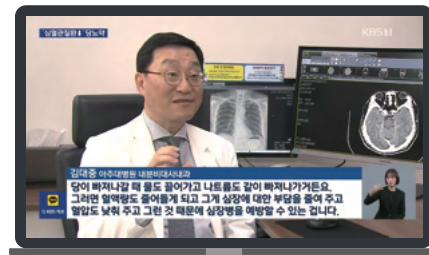
MBN <명사수>
(2023.03.29.)

몸속 비극 부르는 공포의 짝 할당 독소와 겹뱀살
가정의학과 김병택 교수
전문 진료 분야 비만, 골다공증, 임상영양, 포스트코로나클리닉



MBC <봄날의 기적>
(2023.04.20.)

선천성 거대모반증을 앓고 있는 다운이
성형외과 박동하 교수
전문 진료 분야 두개안면기형, 피부종양, 안면부 외상, 코성형, 흉터성형(켈로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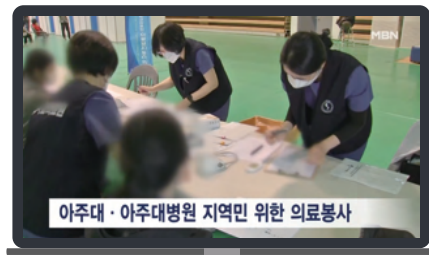
KBS 1TV <뉴스7>
(2023.04.17.)

혈당·심혈관질환 한 번에 잡는다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전문 진료 분야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갑상선질환



jTbc <뉴스룸>
(2023.04.12.)

학대 사망 이시우 군, 1시간 거리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왜?
정신건강의학과 장형윤 교수
전문 진료 분야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해바라기센터)



MBN <뉴스>
(2023.04.17.)

아주대·아주대의료원 지역민 위한 의료봉사 나서
아주대학교의료원

신문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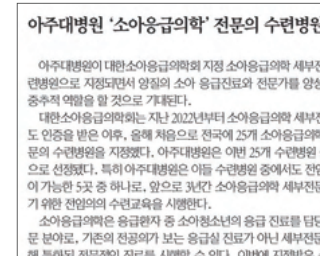
조선일보
(2023.03.02.)

저탄수화물 식사하자...
당뇨 발병 위험 60% 줄었다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중앙일보
(2023.03.03.)

세계 최고병원 250위 내 한국 18곳
아주대학교병원



경인일보
(2023.03.22.)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학' 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아주대학교병원



한국경제
(2023.03.25.)

이승은 교수 등 3명 '두산연강 간담체외과 학술회의' 간담체외과 홍성연 교수



중부일보
(2023.04.12.)

자주 먹는 건강식품 들개 만 3세 아이들에게 '위험'
소아청소년과 이수영·정경욱 교수



경인일보
(2023.04.12.)

사망 불러오는 '간질성 폐질환' 치료 길 제시
류마티스내과 김현아·김지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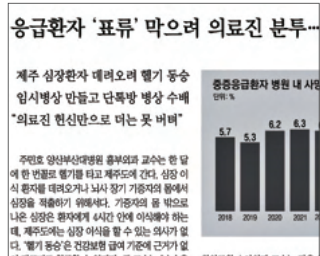
중부일보
(2023.03.09.)

북통 없는 설사엔 신바이오텍스가 효과적
가정의학과 김규남 교수, 정수지 임상강사



중부일보
(2023.03.16.)

아주대병원 육창 전문팀, 완치율 80% 높아
성형외과 김민지·이일재 교수



동아일보
(2023.03.29. ~ 04.03.)

[기획] 히어로콘텐츠-표류: 생사의 경계에서 떠들다
아주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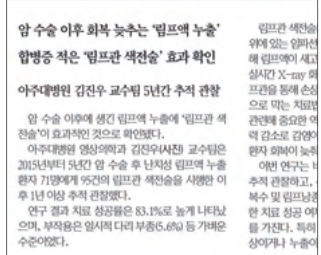
경기일보
(2023.04.05.)

수원특례시, 바이오산업 육성 '미래 승부수'
아주대학교병원



동아일보
(2023.04.13.)

[전문 의 칼럼] 응급-중증 소아환자 '치료 치료' 공공성 강화해야
김영호 임상치의학대학원장 (치과병원장)



경인일보
(2023.04.19.)

암 수술 이후 회복 늦추는 '림프액 누출', 합병증 적은 '림프관 색전술' 효과 확인
영상의학과 김진우 교수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을 이용한
고객님들께서
고마움과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고객의 소리'를 통해 전해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고객님의 마음을 전달해주세요

대표전화 1688-6114,
홈페이지 <http://hosp.ajoumc.or.kr>와
병원 내 '고객 소리함'



지금 바로 QR코드를 찍어서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칭찬해주세요!

- ① QR코드 리더 앱 등을 활성화해 QR코드를 읽는다.
- ② 연결된 페이지에 로그인한다.
- ③ 칭찬하고자 하는 아주대학교의료원 직원의 이름과 이유 등을 기입한다.
- ④ 작성자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한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른다.

“급한 수술에도 잘 보살펴보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심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이 나와 심혈관센터 진료를 받았습다. 스텐트 삽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혈관이 가늘어져 있어 **홍부외과 홍유선 교수님**에게 급히 수술을 받았고, 일상으로 잘 돌아왔네요. 첫 대면 시부터 퇴원 때까지 저를 보살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 최종욱 님

“수술 전 웃는 얼굴로 격려해주신 교수님과 의료진”

수술 당일 **산부인과 장석준 교수님**을 비롯한 의료진분들이 웃는 얼굴로 격려해주셔서 마음 편하게 수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 감사했어요. 수술을 잘 마쳐주신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송명숙 님

“전문적 치료와 시술 덕분에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망막박리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마지막으로 아주대학교병원을 찾았고, **안과 송지훈 교수님**의 전문적 치료와 시술 덕분에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아주대학교병원 안과는 희망입니다.

✉ AN EDUARD 님

“힘이 되는 말과 헌신적 간호로 입원 환자를 돌봐주신 선생님들”

어머니가 폐렴과 신부전으로 입원하셔서 온 가족이 마음 졸이며 3주를 보냈습니다. 환자와 가족에게 힘이 되는 말과 헌신적 간호 덕분에 어머니는 내일 퇴원합니다. 보호자가 환자 곁에 없는 동안에도 세심하게 전화로 어머니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12층 동병동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 이선애 님

“아토피피부염으로 고통스럽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토피피부염이 심해 통증, 건조증, 진물과 염증 등으로 수면장애까지 겪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어려워 심적으로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알레르기내과 박해심 교수님**에게 치료를 받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고통스럽던 저에게 치료법을 찾아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 서희주 님

“세심한 상담과 위로에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렸어요”

목에 이물감이 있어 찾아간 동네 병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후 아주대학교병원 **갑상선내분비외과 이정훈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의 세심한 상담 덕분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치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동환 님

“절망적 상황에서도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와주신 교수님”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해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오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수차례 수술 후 기적으로 회복하여 입원한 지 100일 만에 일반 병동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상외과 김진주 교수님**, 절망적 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김안나 님

“입원에서 퇴원까지 안심, 곁에 있어 든든한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노현웅 교수님**과 **임지영 선생님**이 잘 치료해주신 덕분에 2주 정도 입원을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혹시나 질병이 재발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면 아주대학교병원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모든 과정에서 의료진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이 곁에 있어 든든합니다.

✉ 김내래 님

“환자를 대하는 자상하고 친절하신 마음에 큰 힘을 얻었어요”

남편이 진료를 볼 때 나이가 많아 말을 알아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신장내과 김홍수 교수님**이 늘 자상하고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입원한 남편을 복도에서 마주친 교수님이 직접 검사 결과와 경과를 알려주며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교수님의 격려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 이승석 님

“따뜻한 말투와 미소, 친절하신 대응에 감동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셔서 이를 동안 병실에 상주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어머니를 보살펴준 모든 분께 감사하지만, 특히 **8층 서병동 최지혜 선생님**의 친절함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저것 문의드려도 따뜻한 말투와 미소로 응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간병하는 일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 윤진희 님

“뇌졸중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어린 아들이 이제 열다섯 살이 됐어요”

열세 살이던 아들이 어느 날 심한 두통과 안통을 호소했고,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6개월 후 **신경외과 송지혜 교수님**에게 혈관 제거를 위한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고 잘 회복하여 지금 아들은 열다섯 살이 됐어요. 아들을 살려주신 교수님과 의료진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PAK VLADISLAV 님

“길고 두려웠던 수술, 교수님을 만난 건 행운입니다”

감기 외에 병원을 다녀본 적 없는 저에게 처음 해본 수술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반신 마비를 감수해야 하는 8시간의 길고 두려운 수술을 성공리에 끝내주시는 **정형외과 이한동 교수님**, 교수님을 만나게 된 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잘 마친 후에도 회진 때마다 제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조우기 님



아주대학교병원은 매주 유튜브를 통해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재미있는 건강 상식, 아주대병원TV와 함께하세요!

피부암

피부암 증상! 딱 5분 안에 알아보자!
피부암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피부과 최지웅 교수

고혈압

※고혈압 필수 시청※
높은 혈압을 확실히 낮출 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

순환기내과 박진선 교수

두통

누구나 흔히 두통을 겪지만 '이런 두통'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당장 응급실 가야하는 '3가지 두통 증상'

신경과 김민 교수

만성설사

붉은 변과 설사는 다르던데... 병원에 가야하는 설사의 증상은 '이것'

소화기내과 이광재 교수